

Ripplewood, Kraton Polymers 매각!

수익성 높아 현금유치 기회 맞아 ... Kraton 생산능력 20% 확대 전망

미국의 금융 및 자산투자기업 Ripplewood Holdings이 Styrenic Block Copolymer 생산기업인 Kraton Polymers를 매각키로 했다.

Ripplewood는 Kraton의 대주주로 2001년 Shell로부터 Kraton 사업을 인수했다.

Kraton은 지난 3년 동안 어려운 화학시장 여건 속에서도 수익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에 지금이 바로 현금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한 절호의 기회라고 파악하고 있다.

현재 매각입찰 예비단계에 들어갔으나 세부사항은 밝혀지지 않고 있으며, 금융사들 뿐만 아니라 무역 및 공업사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Kraton은 매출액 6억달러 이상을 기록하고 있으며 아직 영업이익 또는 매각액에 대한 사항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Kraton은 2003년 4/4분기까지 프랑스 Berre 소재 Styrene-Butadiene-Styrene 및 Styrene-Isoprene-Styrene Copolymer Kraton-D 플랜트의 생산능력을 35% 증설하고, 2004년 말까지 프랑스 Berre 및 오하이오주 Belpre 소재 Styrene-Ethylene-Butylene-Styrene 및 Styrene-Ethylene-Propylene-Styrene Kraton-G 플랜트의 생산능력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Kraton의 전체 생산능력이 현재 36만-37만톤에서 약 20% 확대될 전망이다.

Chemical Market Resources에 따르면, Kraton 최대 경쟁사인 ENI의 Polimeri Europa의 Styrenic Block Copolymer 생산능력은 15만톤, Repso-YPE 및 Desc의 합작기업인 Dynasol의 생산능력은 12만톤에 달하고 있다. ExxonMobil-Dow Chemical의 합작기업인 Dexco Polymers 및 Chi Mei가 뒤를 달리고 있으며 이 외에 Atofina, 금호P&B, Taiwan Synthetic Rubber 등도 참여하고 있다.

<Chemical Journal 2003/09/09>